

## 일본 해군의 남해안 조사와 러일전쟁\*

김윤미\*\*

### 목 차

- I. 머리말
- II. 해안측량과 조사보고서
- III. 거점해역 조사와 해군기지 건설
- IV. 맺음말

### I. 머리말

19세기 중엽부터 구미제국은 동아시아 해안에서 해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을 시작했다. 조선에 등장했던 함선은 통상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안측량을 감행했다.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며 군사적 충돌을 시작한 것은 그 서막이었다. 러일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쟁이 끝난 1905년 조선이 일본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조선은 열강들의 각축전이였다. 열강들은 조선의 육지와 바다를 조사하며 개항장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는 1894년 청일전쟁부터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나는 기간 동안 조선과 만주 지역에서 치열하게 정보수집 경쟁을 전개했다.<sup>1)</sup>

정보수집을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은 원산, 인천 월미도, 부산 영도, 마산에서 조차권을 두고 충돌했다.<sup>2)</sup> 조차지는 잠재적인 군사기지였다. 함대의 이동에 필요한 연료와 식수 공급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군용지 개발 전이었다. 조차지를 두고 치열하게 러시아와 일본이 경쟁한 것은 항로의 문제이기도 했다. 러시아의 최대 관심사는 여순과 블라디보스톡 간 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두 항구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인 한반도 남부 지역에 중간 기항지가 꼭 필요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항로를 막기 위해 남해안 연안과 거점 지역에 대한 전략적 조사를 시행하고, 주요 지점에 근거지를 마련하여 러시아의 항로를 차단했다. 대표적인 군사기지는 가덕도-거제도-통영을 잇는 진해만기지<sup>3)</sup>, 신안의 팔

구포 군도기지였다.<sup>4)</sup> 일본이 군사행동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제해권을 장악한 것은 러일전쟁의 시작이었다.<sup>5)</sup>

러일전쟁은 조선이 일본의 지배아래 놓이게 된 결정적인 전쟁이었던 만큼 관련 연구가 상당하다. 그러나 국제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사적 시각에서 러일전쟁을 연구하고, 일차적 사료에 기반한 실증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다.<sup>6)</sup> 이 글도 일본 해군이 생산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러일전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연구를 시도하려고 했다.

연구 대상 지역은 조선 남해안이다.<sup>7)</sup> 러일전쟁을 전후해서 남해안과

62, 2014.; 고경석, 『鎮海軍港史』, 2016.

4) 최성환, 「러일전쟁기 일본해군의 玉島八口浦防備隊 설치와 활용」, 『도서문화』 38, 2011.

5) 한반도의 바다에 대한 제해권은 역사의 전환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해권이란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에서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해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국이 자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해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능력,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개항 후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항해-통상조약을 맺음으로서 영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공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무지에 가까운 상태였다. 반면 구미열강들은 아시아와 한국에 관한 진출, 진입, 침략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했다. (김용욱, 『淸日戰爭(1894-1895)-露日戰爭(1904-1905)과 朝鮮海洋에 대한 制海權』, 『법학연구』 49-1, 2008. 참고.)

6) 조재곤,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 러일전쟁과 한국사회」, 일조각, 2017.; 조건, 「日本防衛省 소장 陸軍 '日露戰役' 문서군의 한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2018.

7) 독도영해 문제가 첨예해지면서 동해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당시 제작된 해도와 자료 발굴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독도와 동해에 주제가 집중되어 있어 조선 전체에 대한 연구로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일본 해군 수로부와 동해 조사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송희영,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 106, 2011.; 정영미, 「일본의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 섬의 명칭 혼란(島名の混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한철호,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65, 2013.; 한철호, 「대한(조선)해협의 명칭 변화 및 그의 미-일본 해군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44, 2014.; 한철호,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169, 2015.; 한철

1) 러시아는 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 이후 한반도의 군사지도를 조직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여 1903년 축척 1:420,000지도 19장을 완성했다. 하지만 1905년 러일전쟁 패배 이후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제작은 중지되었다. 일본 육군참모부도 첩보원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20여년간 은밀하게 지도제작을 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1895년 공식 측량사업을 시작 후 1899년 완료하여 『朝鮮地理誌』를 출간하고, 15만의 『軍用秘圖』를 간행했다. (박경, 「러시아제국의 극동진출과 1860년대 이후의 한반도 주변 지도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6-2, 2016.;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조선말 일제강점기)』, 법문사, 2011. 참고)

2) 최덕규, 「러시아 해군성과 마산포(1894~1905)」, 『한국시베리아학보』 창간호, 1999.; 유장근, 허정도, 조호연, 「大韓帝國時期 馬山浦地域의 러시아 租借地 성립과정과 各國共同租界 지역의 都市化」, 『人文論叢』 16, 2003.; 최문영,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8.

3) 김일상, 『鎮海軍港史』, 『海洋輿地』 8, 1981.; 김일상, 「日帝의 韓半島 侵略政策과 鎮海軍港建設」, 『海洋輿地』 69, 1990.; 김경남, 「韓末 日帝의 鎮海灣要塞建設과 植民都市開發의 變形」, 『港都釜山』 28, 2010.; 이학수, 「진해 군항의 탄생」, 『해항도시문화교섭학』 7, 2012.; 류교열, 「제국 일본의 송진포 해군기지 건설-국제관계와 지역사회의 변동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대한해협(조선해협)의 전략적 위치와 군사적 중요성을 논의한 연구는 다수 있다. 다만 공간에 대한 의미만 논의될 뿐 일본 해군의 전략이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1899~1903년 작성된 남해안 조사보고서를 수집하여 일본 해군이 설정한 군사거점 지역의 위치, 조선의 해안에서 얻고자한 정보 내용, 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의 변화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 II. 해안측량과 조사보고서

### 1. 해안측량과 군용해도 제작

일본 해군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横須賀군항, 吳군항, 佐世保군항, 竹敷요항의 규모를 확장하고, 舞鶴군항을 개설했다. 대만에도 馬公요항을 건설했다. 1903년 7월 일본 해군은 長崎, 函關, 門司, 由浪, 大湊 5곳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함대전진근거지와 전략지점을 수색하고 측량하는데 힘을 쏟았다. 주요지역은 조선 남해안과 서해안의 항이었다. 1896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진해만, 팔구포, 해주읍, 대동강, 아산錨地, 영흥만, 나주군도, 長山列島, 羅源灣 등을 정밀 측량하고, 각 지역의 군용 해도를 제작했다. 특히 진해만, 나주군도, 나원만에 대해서는 방어계획도 수립했다.<sup>8)</sup>

해도 제작은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담당했다. 1869년 창설된 수로부는 연안과 해역의 수로를 측량하고, 군사 목적의 해상 관측을 했다. 수집한

정보를 모아 海圖, 水路誌 등을 제작하여 군에 공급했다.<sup>9)</sup> 수로부는 조선의 수로와 특징을 기록한 『朝鮮水路誌』를 1894년 11월 발행했다.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청일전쟁 이후 1899년 재간행하고, 러일전쟁 전후 빠르고 전면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서 1907년 전폭적으로 개정 보완했다.<sup>10)</sup>

1899년 재간행된 『조선수로지』는 서쪽의 압록강에서 남해안을 거쳐 동쪽의 두만강까지 조선의 전 연안을 대상으로 했다.<sup>11)</sup> 다만 동해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조사하거나, 측량하지 못한 지역이 상당수 있다. 서문에 간략한 경과와 개요를 실고 있다. 제1편 조선전체 자료 조사는 일본 海軍圖誌와 在韓영사 보고, 1894년 영국 수로부에서 간행한 『중국어수로지 제4권』을 근간으로 했다. 제2편 서해안은 1889년, 1894년, 제3편 남해안은 1893년, 1894년, 1896년, 제4편 동해안은 1880년, 1896년, 1898년 조사 결과였다. 1899년 간행물은 그해 12월까지 국내외 정보, 고시 등을 수합하여 발간했다. 서해안은 압록강, 진남포, 대동강, 대동만, 연평영도, 한강, 아산錨地, 목포, 대흑산군도, 염하, 제물포錨地, 천수해만, 나주군도, 압양도 등을 조사했다. 동해안은 원산진, 신포錨地, 서호만, 이월錨地, 사포, 조산만, 영호진 및 장전동, 영흥만, 송전만, 퇴호포, 신창만, 이월박지, 성진포, 나진포, 두만강 등을 대상으로 했다. 남해안은 세부적으로 남서해안, 남해안, 남동해안을 구분하여 다른 지역보다 많은 분량을 기록하였다. 남해안에는 朝鮮海峽을 조사한 기록도 수록되어 있다.<sup>12)</sup>

9) 大濱徹也·小澤郁郎, 『帝國陸海軍事典(改訂版)』, 同成社, 1995, 74~75쪽.

10) 남영우, 「日帝參謀本部間諜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近代地圖의 作成過程」, 『문화역사지리』 44, 1992. 참고.

11) 水路部, 『朝鮮水路誌』, 東京製紙分社, 1894.; 水路部, 『朝鮮水路誌 第2版』, 東京印刷株式會社, 1899. 1894년과 1899년 간행물을 비교해보면 구성과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2) 조선해협은 『조선수로지』에 따르면 西水道와 東水道로 나누고, “이 해협은 일본 서안과 조선 남동안 사이의 해협으로 쓰시마[對馬島]를 중앙에 두고 횡으로 동서 2개의 수도로 나누어진다. 서수도는 쓰시마 南角조선 鴻島에 이르는 34里, 쓰시마의 北角부산항에 이르는 24里이다. 가장 깊은 곳은 쓰시마의 서안부근으로 90尋이다. 동수도는 쓰시마 南角이끼시

호,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0, 2015.; 김영,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에 관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23, 2017.

8) 海軍軍令部, 「第1編防備第1章防備一般」, 『極秘明治37.8年海戰史』(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4500)

조선 해안조사는 근대적 해도 제작으로 이어졌다. 수로부는 1896년 『朝鮮全岸』을 시작으로 매년 많은 해도를 생산했다. 매년 간행하는 해도의 『간행수로도지목록』집을 발행하고, 이중 일반에 제공하는 『공급수로도지목록』집도 발간했다. 1899~1902년의 간행목록은 거의 동일하다. 해도 목록이 두드러지게 변화되는 것은 1903년과 1905년이다. 1902년 ‘부산항과 부근연안’ 해도가, 1903년 ‘조선남동해안과 對馬’, ‘조선남해안과 남서해안’, ‘제물포 錨地’가 새롭게 제작되었다. 해군의 조선해안 측량의 결과는 1905년을 전후해서 대대적인 해도의 수정보완으로 나타났다. 보완된 해도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했다.<sup>13)</sup> 1905년 특별히 아산만과 해주읍, 원산 송전만에 전략지점 측량을 긴급히 시행했다.<sup>14)</sup> 1905년까지 간행된 해도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1906년 간행된 『刊行水路圖誌目錄』 중 조선해도 목록

(1월 조사, 2월 발행)				
번호	海名	측량년도	간행년월	개정년월
74	朝鮮西岸諸錨地 頂山錨地 馬山浦 淺水灣門 牙山錨地 巴羅斯港 喬桐錨地	1892	1892.4	1894.6
301	朝鮮全岸	1892	1896.4	1905.7
304	朝鮮南東岸及對馬	1899	1902.7	1905.8
311	朝鮮南岸及南西岸	1899	1902.5	1905.1
				1905.8
313	釜山港	1899	1904.3	1905.8
				1905.12

마[臺岐島]를 이르고, 가장 좁은 부분이 약 25리 가장 깊은 부분이 대략 60尋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13) ‘수로도지목록’을 참고한 내용은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다음의 자료를 출처로 한다.  
 水路部, 『刊行水路圖誌目錄』,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水路部, 『供給水路圖誌目錄』, 1901; 1902; 1903; 1904(1); 1904(2); 1905; 1906.  
 14) 海軍軍令部, 「第4編 艦隊의 施設 第4章 戰略地點의 測量」, 『極秘 明治37.8年海軍戰史』(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O51101157000)

314	永興灣 元山津	1899	1903.2	1900.1
				1905.10
315	朝鮮東岸北部諸錨地	1887	1899.12	1897.12
				1905.11
316	濟州島諸錨地	1902	1904.2	
319	造山灣 浦項錨地 瑪丁灣	1887	1899.5	1900.10
320	朝鮮叢島南部	1887	1888.12	1901.4
				1905.11
321	朝鮮東岸諸錨地 ※	1889	1894.4	1900.10
				1904.10
322	長箭洞至潤聿灣 城津浦 退湖浦 泗津錨地 등	1887	1905.5	1905.11
323	濟物浦錨地	1901	1903.2	1904.2
326	漢江近海	1902	1905.11	-
327	濟物浦錨地及近海	1904	1905.11	-
328	해밀턴항 ※※	1885	1904.11	1904.9
				1905.5
330	馬山浦及釜島水道	1899	1904.5	-
331	所安港	1896	1899	1905.6
332	延平列島至大同江	1890	1893.5	1905.4
333	群山浦及附近	1899	1899.10	1903.1
334	朝鮮西岸	1903	1905.10	1905.11
336	馬山浦附近 知世浦	1898	1902.4	-
338	蔚山港	1891	1892.11	1900.5
340	木浦泊地	1895	1899.2	1902.8
348	大同江 鐵島錨地	1901	1905.9	1905.12

※ 원자료에 189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05년 발간물을 참고하여 1889년으로 수정함.  
 ※※ 거문도를 지칭함.

<표 1>처럼 수로부는 매년 간행하는 해도목록집을 발행하는데, 이것은 공급목록과 차이가 있다. 1899년부터 1903년까지 울산항, 소안도(완도), 마산포 및 거제도-지세포 해도는 일반에 제공되지 않았다. 1904년 1월 조사결과를 보면 공급목록이 크게 줄었다. 군용 해도로 지정되었기 때

문이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는 러일전쟁 시기였다. <표 2>와 같이 1905년 1월 조사에 따르면 대동강, 인천과 서울 한강, 군산, 완도, 마산과 거제도, 울산의 해도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표 2> 1905년 『간행수로지목록』과 『공급수로지목록』 현황

간행 수로도지목록(1월 조사)		공급 수로도지목록(1월 조사)	
번호	圖名	번호	圖名
74	朝鮮西岸諸錨地, 頂山錨地, 馬山浦, 淺水灣門, 牙山錨地, 巴露斯港, 喬桐錨地		
156	所安港		
301	朝鮮全岸		
304	朝鮮南東岸及對馬	304	朝鮮南東岸及對馬
311	朝鮮南岸及南西岸	311	朝鮮南岸及南西岸
313	釜山港及附近沿岸	313	釜山港及附近沿岸
314	永興灣, 元山津	314	永興灣, 元山津
315	朝鮮東岸北部諸錨地	315	朝鮮東岸北部諸錨地
316	濟州島諸錨地	316	濟州島諸錨地
319	造山灣, 浦項錨地, 瑪丁灣	319	造山灣, 浦項錨地, 瑪丁灣
320	朝鮮叢島南部	320	朝鮮叢島南部
321	朝鮮東岸諸錨地	321	朝鮮東岸諸錨地
322	長箭洞至潤津灣, 城津浦, 退湖浦, 泗津錨地 등	322	長箭洞至潤津灣, 城津浦, 退湖浦, 泗津錨地 등
323	濟物浦錨地	323	濟物浦錨地
326	漢江近海		
327	濟物浦錨地及近海		
328	해밀턴항	328	해밀턴항
330	馬山浦及釜島水道	330	馬山浦及釜島水道
331	所安港		
332	延平列島至大同江		
333	群山浦及附近		
334	朝鮮西岸		
336	馬山浦附近, 知世浦		
338	蔚山港		
340	木浦泊地	340	木浦泊地
348	大同江, 鐵島錨地	348	大同江, 鐵島錨地

2. 조사보고서 현황과 특징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1899~1903년 일본 해군의 조선 남해안 조사보고서를 수집했다. 확보한 보고서는 연도별로 1~2건이다. 함선들이 이 기간 동안 조선 남해안을 순항하면서 항로와 지역조사를 수행한 결과물이다. 보고서를 통해 조사 목적, 경과, 종합의견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료는 <표 3>과 같다.

<표 3> 일본 해군의 남해안 조사보고서(1899~1903)

시기	건	철	자료번호
1899	軍艦警城海門 筑波 天龍 為測量派遣并帰朝命免(1)~(2)	明治32年 公文備考 艦船1卷7	C06091208700
1900	驅逐艇 薄雲, 夕霧 韓国沿岸巡航報告(1)~(2)	明治33年 公文備考 艦船3卷10	C06091267500~ C06091267600
1901	常備艦隊敷島, 出雲, 淺間, 常磐, 笠置, 夕霧, 漣, 隣邦沿岸巡航報告(1)~(8)	明治34年 公文備考 演習艦船1卷8	C06091313600~ C06091314300
	艦船 3(1)~(3)	明治34年 公文備考 艦船3卷10	C06091470500~ C06091470800
1902 ~ 1903	水雷艇隊巡航報告(1)~(3)	明治36年 公文備考 卷14艦船 3	C06091470500~ C06091470800
	第12師団 海軍大演習陪觀の件 報告	密大日記 明治36年從1月至6月	C03022786700
	第1師団 海軍大演習陪觀の件 報告		C03022786800
第4師団 海軍大演習陪觀の件 報告	C03022786900		
1911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sup>15)</sup>	C05110029500~ C05110203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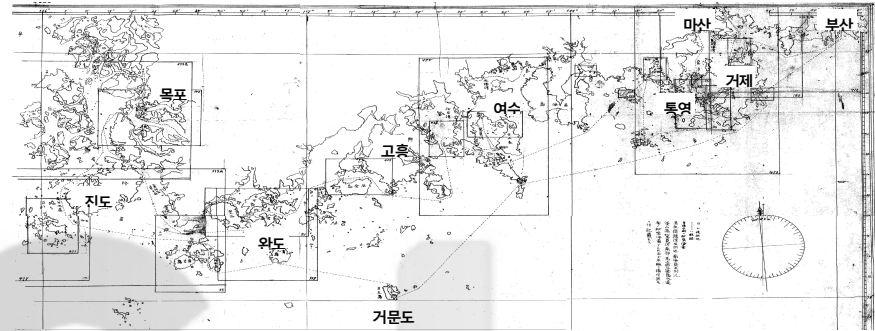
15) 『極秘 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는 1905년 12월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1911년까지 150책이 완성되었다. 이 자료를 근간으로 일본 해군은 『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를 편찬했다. 1910년 4권으로 간행했고, 1934년 러일전쟁 30주년을 기념해서 2권으로 재간행 했다. 책은 일본국 회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海軍軍令部編 『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第1卷~第4卷, 春陽堂, 1910.; 海軍軍令部編 『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上卷~下卷, 内閣印刷局朝陽會, 1934.)

조선 연안과 개항장을 조사한 것은 상비함대였다.<sup>16)</sup> 1899년 3월 사세보[佐世保]진수부 소속 海門, 天龍를 대만으로, 요코스카[橫須賀]진수부 소속 측량함정 筑波를 조선에 파견했다. ‘한국측량훈시’를 통해 조사 대상을 전라도와 경상도 방면으로 한정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없지만 팔구포, 울산, 부산, 진해만의 해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 때 조사 지역은 러일전쟁 시기에 군사거점이 된 곳이다.<sup>17)</sup>

1900년 보고서도 1건 확인된다. 10월 상비함대 제1구축대사령부, 제2구축대사령부에서 조선 남해안 조사를 위해 함대를 출항시켰다.<sup>18)</sup> 제1구축대사령부는 구축함 薄雲, 夕霧를 파견해서 10월 16~29일 조선 남해안 조사와 거점지역에 대한 측량을 시행했다. 사세보를 출발한 함선은 부산과 목포를 기착지점으로 하여 식료품과 물을 공급받고, 군인들은 상륙하여 휴식을 취했다. 사세보에서 물과 기본 식량을 싣고 출발한 함대는 부산에서 물을 보충했고, 이후에는 끓인 물을 사용했다. 생선이나 식료품은 부산과 목포에서 구입했다. 함대는 13일 동안 사세보-부산-마산포-통

영-죽림포-고성-蘇場-防踏鎮(\*순천)-장직로-목포-所安島(\*완도)-거문도-安島(\*여수)-지세포-부산-사세보를 순항하는 일정이었다. 함대의 항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1구축대사령부의 조사 항로와 지역<sup>19)</sup>



해도의 선은 항로를 표시한 것이다. □는 조사 지역과 견취도를 제작한 곳이다. 지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부산항, 마산포, 통영, 죽림포, 지세포, 고성, 목포, 소안도, 청산도, 거문도였다. 특히 마산포에 관한 기록은 여러장이다. 이 외에 정박 지역의 수질을 검사하여 생수로 음용이 가능한지 시험하고, 결과를 보고했다.

1900년 10월 14일 제2구축대사령부도 군함 雷, 電, 曙, 連 4대를 사세보에서 부산으로 출항시켰다. 함대들은 한달 가량 부산에서 목포까지 연안 조사를 시행하고, 사령관에게 결과를 보고했다.<sup>20)</sup> 군함 曙와 連은 수로

- 16) 1870년 최초로 함대를 편성하여 1889년 상비함대로 재편했다. 1903년 12월 상비함대는 해제되고, 제1함대와 제2함대로 재편되었다.
- 17) 海軍省, 『軍艦警城海門 筑波 天龍 為 測量 派遣 并 掃 朝 命 免(2)』, 『明治32年 公文備考 艦船1卷7』, 1899.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91208600)
- 18) 1900년 10월 제1구축함대사령부의 조선 남해안 조사에 관한 내용은 『驅逐艇 薄雲 夕霧 韓國 沿岸 巡 航 報 告』, 『明治33年 公文備考 艦船3卷10』, 1900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91267500 ~ C06091267500)를 근거로 서술하였다.

작성일	발신→수신	구성
1900.10.31.	제1구축대사령관→상비함대사령장관	한국 순항 기사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상신
1900.10.29.	薄雲 함장→제1구축대사령관	한국순항 발착시각 航程과 석탄 소모 보고
		薄雲, 夕霧 한국남안 순항기사
1900.10.	제1구축대사령관→상비함대사령장관	한국순항 중 의견
1900.10.29.	해군中軍醫→제1구축대사령관	한국순항 위생기사
1900.10.29.	夕霧 함장→제1구축대사령관	한국연안 순항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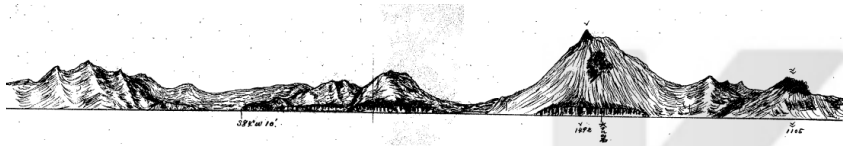
19) 이 해도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참고한 것이다. 부산항, 마산포, 釜島 수도 등이 비밀해도에 해당되고, 이 지역은 청색으로 구획선을 그었다고 한다. 검은색으로만 확인이 되어 향후 원문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20) 水路部, 『艦船3』, 『明治34年 公文備考 艦船3卷10』, 1901.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91316200~C06091316400)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 체계와 내용으로 편철되어 있다.

등 중요한 지역의 산세와 지형을 스케치하는 견취도를 제작하고, 군함 雷 電은 함대를 호위했다.

함대 連 曙는 견취도와 사진을 보고했다. 連함장은 ‘마산포 입구’ 견취도, ‘마산포 거류지’ 사진, ‘견내량 해협’ 견취도, ‘여수 해협 동입구’ 견취도, ‘여수 해협 서입구’ 견취도, ‘목포 입구’ 견취도, ‘목포 거류지’ 사진을 첨부하였다. 曙함장은 ‘가덕수도 입구’, ‘여수 해협 동구’, ‘백야도 수도서구’ 견취도, ‘여자만 입구’ 견취도를<sup>21)</sup> 제작하여 보고했다.

<그림 2> 제2구축함대사령부 함대 曙의 ‘가덕수도 입구’ 견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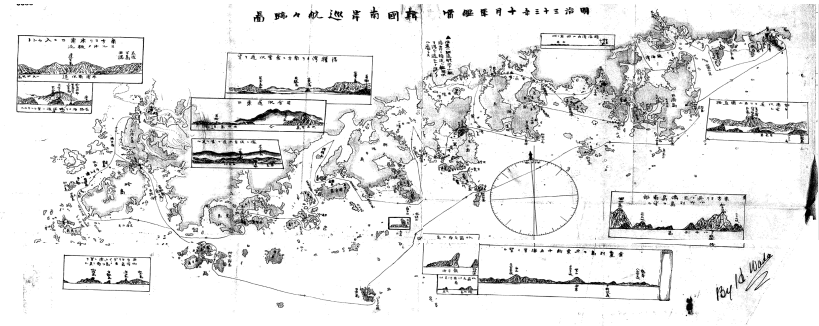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제2구축함대사령관은 11월 20일 <한국남안순항보고서>를 상비함대사령장관에게 상주했다. 이동한 항로, 항구의 시설과 수심 등을 기재했다. 마산, 거제도 죽림포, 통영, 부산은 비교적 세밀히 보고했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국 선박의 정박 유무, 일본과 교통 상황,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 쌀·닭·소·돼지·채소·계란 등의 식량 조달 상황 등에 관한 것이었다. 마지막에 <그림 3>의 항적로를 첨부하였다.

작성일	발신→수신	구성
1901.3.14.	해군성 수로부→군무국	
1900.12.24.	상비함대 사령장관→해군대신	
1900.11.20.	제2구축함대사령관→상비함대사령장관	<한국남안순항보고>
1900.11.2.	電함장→제2구축함대사령부장	조선남해안순항기사, 견취도 및 사진

21) 白也島와 汝自灣는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여수에 속한다.

<그림 3> 제2구축함대사령부 군함 雷, 電 航跡圖<sup>22)</sup>



1901년 8월에는 군함 敷島, 出雲, 浅間, 常磐, 笠置, 夕霧, 漣이 중국과 조선 연안을 시찰하고 보고서를 상주했다.<sup>23)</sup> 조선의 조사 지역은 경성, 인천, 목포, 통영, 마산포, 부산항, 죽림포, 팔구포 등이었다. 경성에서는 경성 거주 일본인, 풍속, 재류 청국인, 곡물수출금지령, 최근 함선 함정 정

22) 보고서 말미에 별지에 첨부한 항적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赤선은 군함 雷의 항적이고, 靑선은 군함 電의 항적이다. 두 함대가 함께 간 곳은 단지 적색으로만 표시하였다고 한다. 추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23) 常備艦隊副官, 「艦隊敷島, 出雲, 浅間, 常磐, 笠置, 夕霧, 漣 隣邦沿岸巡航報告」, 『明治34年公文備考 演習艦船1卷8』, 1901.(아시아歴史資料センター, C06091313600~C06091314300) 문서의 편철은 다음과 같다.

작성일	발신→수신	구성
1901.9.21.	상비함대사령장관→해군대신	상비함대 敷島, 出雲, 浅間, 常磐, 笠置, 夕霧, 漣, 隣邦 <연안 순항보고>
1901.8.23.	浅間함장→상비함대사령장관	<北清 및 한국 남해안 시찰보고>
1901.8.24.	朝日함장→상비함대사령장관	<경성 시찰보고>
1901.8.28.	朝日함장→상비함대사령장관	<太沽, 天津, 北京 시찰보고>
1901.8.28.	笠置함장→상비함대사령장관	北清과 한국 시찰보고
1901.9.19.	敷島함장→상비함대사령장관	<팔구포조사보고>
1901.8.24.	常磐, 出雲함장→상비함대사령장관	<팔구포 조사 사항 보고>
1901.9.5.	浅間, 朝日함장→상비함대사령장관	<출정가근거지로서 팔구포방비>
1901.8.24.	笠置함장→상비함대사령장관	<팔구포>
1901.8.15.	佐伯濟遠함장→상비함대 참모장	<팔구포 조사>

박지, 우편, 전신, 도로, 화폐, 식료품 및 일용품, 범죄, 대한제국 황실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조사했다. 그 외 지역도 조사 항목은 비슷하다. 특별히 팔구포에 대한 보고서는 140여장에 이른다.

1903년 조사는 다케시키[竹敷]요항부 소속 제1수뢰함대, 제3수뢰함대, 제14함대대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1903년 1월 거제도 지세포 조사를 한차례 실시했고, 12월에는 목포, 군산, 부산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진행했다. 규슈[九州]의 고토[五島]열도 연안항로도 함께 순찰했다. 8월에는 울산에서 원산에 이르는 주요 지역을 조사하고, 항로도 첨부했다.

1903년 11월에도 남해안 조사를 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사의 목적은 부산에서 군산으로 수뢰대가 임무를 수행 할 때 좁은 수로가 많으므로 미리 정보를 수집해두는데 있었다. 보고서는 목포, 통영, 산일도(\*고흥), 군산 조사, 그리고 항로도와 수온변화표가 첨부되어 있다. 그다음으로 일본 규슈 나가사키 서쪽의 고토열도의<sup>25)</sup> 순항보고와 항로도가 있고, 부산과 목포의 위생에 관한 조사도 자세히 실려 있다.

24) 竹敷要港部司令官, 「水雷艇隊巡航報告」, 『明治36年公文備考 卷14 艦船3』, 1903(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91470500~C06091470800).

이 문서는 1903년 함선3의 공문철에 수록된 건으로 4개로 편철되어 있다. 내용은 거제도 보고서, 남해안과 고토열도 조사보고서, 동해안 조사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竹敷要港部司令官이 1903년 12월 해군대신에게 보고한 건으로 총 178장이다.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성일	발신→수신	구성
1903.1.21.	竹敷要港部 제3수뢰함대 함장	<거제도 지세포 시찰보고>
1903.1.24.	竹敷要港部司令官→해군대신	<수뢰정대 순찰보고> 제3수뢰함대 수뢰함 남해안 시찰 보고 전달
1903.7.18.		<제1수뢰정대(鷗, 隼) 한국동해안순항기>
1903.8.18.	竹敷要港部司令官→해군대신	제1수뢰함대(鷗, 隼) 한국동해안항로조사
1903.11.	제14함대	<한국남해 및 五島연안순항보고>
1903.12.16.	竹敷要港部司令官→해군대신	제14함대사령관-한국남해 및 五島연해순항보고

25) 고토열도는 나가사키 서쪽에 있는 후쿠에[福江], 히사카[久賀], 나루[奈留], 와카마쓰[若松], 나카도오리[中通] 5개 섬을 이른다. 고토열도를 중심으로 140개의 섬들이 늘어서 있다. 이 해역은 중국해와 동해, 서해와 남해를 지나는 항로의 중요한 거점이다.

### Ⅲ. 거점해역 조사와 해군기지 건설

#### 1. 거점해역 조사

1899~1903년 일본 해군의 남해안 조사보고서를 정리해보면 대략 몇 가지 사안들로 집약된다. 첫째는 개항장, 둘째는 진해만, 셋째는 팔구포, 넷째는 석탄저장소와 식수 조사이다.<sup>26)</sup>

첫 번째는 개항장 조사였다. 조선의 개항장은 부산(1878년), 원산(1880년), 인천(1883년), 목포, 진남포(1897년), 군산, 마산, 성진(1899년), 용암포(1904년), 신의주(1906), 청진(1908년)이었다. 이 중 조선 남해안의 개항장은 부산, 목포, 마산이었다. 일본 해군은 남해안 조사범위에 군산까지 포함하기도 했다.

1900년 10월 파견된 제1구축함대는 마산에 대해서 10여장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러시아의 마산포 토지 매입 경과, 배치된 군함과 군인들의 동향을 자세히 기록했다. 별도로 러시아와 일본의 마산포 토지 소유 현황을 그린 ‘馬山浦界面’을 첨부했다. 10월 17일 부산을 출발한 제2구축함대도 마산에 도착한 후 교통, 물산, 일본 상인과 거류민 현황, 석재, 러시아 군함의 정박, 해안 매립 공사 종료 확인, 세관과 우편국 공사 진행 점검, 식수 등을 파악했다.

1903년 11월 제14함대도 주요 지역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관찰하고 검토했다. 통영과 산일도(\*고흥)에 대해서는 간단히 지역 조사를 진행하고, 목포와 군산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시행했다. 목포와 군산에 대한 조사 항목은 25개로 다음 같다.

26) 이 장에서 참고한 자료는 별도의 각주가 없으면 <표 3>의 조사보고서(1899~1903)를 출처로 한다.



①조우한 외국 함선 함정, ②우편전신국 유무와 소속, ③석탄 종류, 양, 가격, ④폭풍, 標 유무, ⑤호수 및 인구, ⑥주요 물산, ⑦수출입 물품의 수송 교통선, ⑧담수성질, ⑨商工場 상황, ⑩해륙교통 상황, ⑪사원의 수 및 그 명칭, ⑫부근의 이름 있는 뜰까지의 거리, ⑬학교, 병원, 은행 유무, ⑭소, 말, 기타 가축, 야채 종류, ⑮여관 수와 이름, ⑯기후, ⑰船客用浮船 수, ⑱ 화물운반선 수, ⑳漢船 수, ㉑水船 수, ㉒艇船을 접안할 해안荷揚場, ㉓해안접안 창고, ㉔집꾼, 舟夫, 人夫 수, ㉕材木의 종류, ㉖ 작전계획에 대한 긴요한 材料.<sup>27)</sup>

군산을 조사한 후에는 해도와 『조선수로지』의 정보가 실제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보고했다. 조선서해안 해도는 군산항 방면의 강물 유속, 바위 높이, 섬 또는 산의 높이와 형태, 위치 등에 오류가 많았다. 또 『조선수로지』에 기록된 군산의 정보보다 거류민이 훨씬 더 많았고, 해상의 교통도 아주 번잡했다.

부산과 목포에 대해서는 전염병을 포함한 위생에 관한 조사를 시행했다. 각종 전염병의 유행 여부, 환자 발생수,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는 避病院 상황 등을 확인했다. 부산은 다수의 전염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목포는 조사 당시 전염병 환자가 없었다.

두 번째는 진해만 조사였다. 진해만은 부산 가덕도에서 거제도과 통영까지 이른다. 조사보고서마다 빠지지 않는 조사지역이 진해만이다. 1900년 10월 제1구축함대도 거제도 죽림포, 통영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다. 10월 18일 죽림포에 정박했을 때는 담수의 양, 육류와 채소 등의 식품 공급량을 확인했다. 특히 ‘군사상 죽림포의 가치’를 별도로 언급했다. 항내의 수심은 큰 함선이 정박하기 어렵지만 구축함과 수뢰함대의 가근거지로 적합하다. 죽림포는 부산-쓰시마, 블라디보스톡-여순의 연락을 단절하는데 중요한 위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10월 19일 통영으로 이동하

여 해안의 우물을 조사하고 쌀과 육류 등의 식품을 시장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형선박 여러 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고, 식품을 대량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유용한 항만으로 평가했다.

1900년 10월 과전된 제2구축함대도 마산포, 진해만, 거제도 죽림포, 한산수도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남겼다. 하루 정박하는 정도여서 세밀한 조사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덕도의 남단인 마산포는 사면이 넓고 안전하며, 진해만은 섬이 병렬하여 만을 방어하고 부산과 경성간 도로가 있어 교통의 이점이 있음을 알렸다. 거제도 죽림포는 쓰시마의 군항 다케시키[竹敷]와 군사상 최상의 연결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한산수도는 협소하여 큰 함대가 통과하지 못하지만, 수축함이나 수뢰정이 통과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며 군사상 필요한 수도라고 제시했다. 거문도도 사세보에서 조선 서해안 항해시 피난소로 좋은 위치 있다고 보고했다. 견내량 해협은 거제도와 진해만을 방어할 때, 칠천수도와 함께 가장 필요한 수도이고, 구축함 이하급의 함정이 숨어서 정박하기에 좋은 곳이다. 따라서 석탄저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903년 1월 8일 제3수뢰함대 소속 수뢰함이 거제도 지세포를 집중 시찰했다.<sup>28)</sup>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세포는 사망 1해리가 허가된 항만으로 수뢰함 30척은 정박할 수 있고, 항구는 좁지만 별다른 풍파가 없다. 만약 전투가 있을 때는 수뢰함의 은신처로 가장 적당한 항만이라고 판단했다. 지세포는 2백여 명이 거주하며 곡식을 생산하고 해산물을 잡아서 식량으로 삼았는데, 자체 소비하는 정도로 소량이다. 소 40마리, 돼지 20마리, 야생소 10마리, 닭 200마리가 있고, 달걀은 매일 50개를 생산할 수 있다. 담수는 육지에서 다량으로 얻을 수 있다. 별도로 1월 21일 마산포영

28) 거제도 지세포는 진해만 방어와 ‘조선해협’ 봉쇄를 위한 작전지역이었다. 정면에 지심도라는 큰 섬이 지세포만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러일전쟁 이후 이 섬에 진해만요새사령부의 포대가 대규모로 건설되었다.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重砲兵聯隊史』, 千倉(東京), 1999. 참고)

27) 보고서에는 항목 17이 없어 조사한 항목은 모두 25항목이다.

사가 보고한 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마산포영사에 따르면 마산주재 러시아 수병 7명이 1월 7일 병영을 떠나 러시아 선박에 탑승하여 귀국하였는데, 이후 이제까지 교대병이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마산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세 번째는 팔구포 조사였다. 1901년 8월 군함 敷島, 出雲, 淺間, 常磐, 笠置, 夕霧, 漣은 중국과 조선 연안을 시찰하고 보고서를 상주했다. 집중 조사한 곳은 팔구포였고, 제출된 보고서는 140여장에 달한다. 각 함대는 팔구포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팔구포는 남서해안이 만나는 지점으로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군도이다. 비금도, 도초도, 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좌도, 하의도, 신의도, 장산도 일대를 지칭하는데, 8개의 물길이 열려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sup>29)</sup>

1901년 8~9월에 걸쳐 각 함대는 상비함대장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상신했다. 이 중 淺間 함장의 <출정근거지로서 팔구포의 방비> 계획을 살펴볼 것이다. 보고서는 ①출정가근거지 방비의 요지, ②팔구포의 가치, ③방어계획과 이에 필요한 인원·재료, ④방어준비에 관한 희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정가근거지는 전진근거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성이 높은 곳을 설정한다. 여기에는 우수한 함대를 먼저 배치한다. ‘팔구포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보면, 팔구포는 조선 남해안에 위치하여 황해와 조선해협을 장악하고, 동해와 중국해의 중간에 위치하여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인천항과 목포항의 길목을 장악하고 전라도와 경기도에 군세를 떨칠 수 있으며, 선박의 항로에 해당하므로 적국의 해상무역 등을 막을 수 있는 곳이다. 팔구포는 만내가 넓어 출입이 안전하고 풍랑을 피하기 좋으며, 사면의 모든 섬들이 봉우리가 높아서 만내를 가려준다.

그러나 전진근거지로 전략상으로는 중요하나, 지질과 지형상으로 고려해볼 때는 영구적 근거지로는 부적당하다. 사면의 섬은 모두 바위가 많

고, 토질이 좋지 않아 여러 종류의 材料를 구하기가 어려우며, 정박할 해안이나 평탄한 지역이 없다. 따라서 배를 건조하고 수리할 船渠공장, 청사, 병영, 창고, 그 외 시가지를 형성해야 했다.

팔구포의 방어구역은 3구역으로 나누고, 근거지사령부는 옥도에 두도록 했다. 제1구사령부는 대야도, 제2구사령부는 북도, 제3구사령부는 옥도에 둘 것을 제시했다. 옥도에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팔구포의 본부가 되도록 했다. 각 지구의 방어 시설과 배치 병력, 방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네 번째는 석탄저장소와 식수조사였다. 항해하는 중에 석탄과 물 공급은 필수품이다. 1900년 10월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제2구축함대사령관은 남해안의 석탄저장소에 관한 내용을 상신했다. 진해만을 출발하는 함대의 근거지로, 구축함대 혹은 수뢰함대가 이용할 수 있는 석탄저장소 건설지로 5곳을 추천했다. ①부산(진해만에서 32리), ②옥지도 동항(진해만에서 54리), ③좌수영(진해만에서 78리), ④장직로(진해만에서 150리), ⑤달리도(진해만에서 195리)였다. 모든 석탄저장소는 진해만과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sup>30)</sup>

1903년 11월 조사보고서에 석탄저장소 설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 보고서 말미에 해군대위 吉川安平와 飯田延太郎이 작성한 의견서가 첨부되었다. 먼저 吉川安平은 ‘목포에 함대 탄창의 설립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다. 석탄저장소는 부산과 인천에 있고, 사세보에서 청으로 갈 때 인천에서 석탄과 물을 보충한다. 그런데 인천은 편성된 일반 항로와 거리가 멀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 이번 조사에서도 임무 수행 중 부산으로 되돌아가 석탄과 물을 보충해야 했다. 마산에 석탄저장소 공사를 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 일본 해군이 조선 서남해안을 항해 할 때는 목

29) 최성환, 「러일전쟁기 일본해군의 玉島 八口 浦防備隊 설치와 활용」, 『도서문화』 38, 2011. 참고

30) 좌수영은 여수를 지칭하고, 장직로는 완도의 고금도·조약도·신지도를 일컫는 것이며, 달리도(達里島)는 목포 고탄도 부근이다. 진해만의 기점은 거제도 송진포가 근거지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 않다.

포에서 석탄과 물을 보급하는 것이 좋은 데 고하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고하도 북부는 육군성의 조차지이므로 일부를 석탄저장소 부지로 하고, 저수지를 만들어 항상 20톤 내외의 담수를 저장할 계획을 세웠고, 공사를 거의 마쳤다.

각 지역의 석탄 종류, 양, 가격 등을 조사했는데, 목포는 함선용으로 비축한 석탄이 전혀 없었다. 군산에서 선박용으로 저장된 석탄이 10톤 정도 있었는데, 이 석탄은 강경군 산맥에서 채취되는 것이었다. 겨울동안 약 1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금강 상류에서 군산에 이르는 탄맥을 발견하고, 즉시 시료를 東京으로 보내 탄질과 성분을 실험하도록 했다.

飯田延太郎도 역시 목포 탄창 설치의 필요성, 조선 연안에 탄창과 연탄 준비의 필요를 제시했다. 조선 항로에서 서쪽에 있는 목포는 현재 석탄저장소인 부산, 쓰시마 다케시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순항하는 함정을 위해 조선 연안에 석탄저장소와 연탄 비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회의 남해 순항조사 시에도 부산에서 석탄을 보충했기 때문이다.<sup>31)</sup>

식수공급에 대해서는 1900년 10월 제1구축함대사령부의 조사보고서가 있다. 연안 조사 중 정박한 지역의 수질을 검사하여 생수로 음용이 가능한지 보고했다. 해군군의가 작성한 수질검사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1900년 10월 조선 남해안 식수 조사 현황

일시	지역, 용수	결과
10월 17일	부산절영도 炭庫地의 水 부산거류지 水道水	적합
10월 18일	마산포 谷川水	부적합
	마산영사관 井水	적합
10월 19일	통영 井水	부적합

31) 1904년 당시 한반도에는 부산, 인천, 원산에 석탄저장소가 있었고, 사세보진수부에서 석탄을 공급하고 있었다. 『海軍軍令部 第2編 海軍艦政本部 第2章 石炭及燃料』,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12500)

"	거제도 谷川水	부적합
10월 20일	고성 井水	부적합
10월 22일	돌산도 井水	부분적합
10월 23일	목포 領事領 井水	부분적합
	목포거류지  사용 源水	부분적합
10월 24일	소안도 井水	적합
	소안도 川水	부분적합
10월 25일	안도 井水	부적합
10월 26일	지세포 谷川水	적합

<표 4>에 의하면 부산, 마산, 소안도, 지세포는 식수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있지만, 그 외 지역은 부유물이 많아서 마실 수가 없거나 일부 제한된 구역의 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일본 해군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마실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군산의 식수조사는 1903년 11월 파견된 제14함대에서 실시했다. 군산의 우물에서는 소량의 석회와 염분,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식수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 2. 대규모 해상훈련과 해군기지 건설

진해만은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던 곳이다. 러시아는 석탄 등을 공급하는 보조군항이자,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 야욕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거점으로 삼고자 했다. 한편 일본도 이 지역을 블라디보스톡-여순을 연결하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연결을 차단하고, 한반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확보해야 하는 요충지로 주목했다. 양국의 견제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기 직전 러시아는 마산을 포기하고, 1903년 1월 완전히 철수했다.<sup>32)</sup> 러시아는 1902년 10월 8일 만주에서도 군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제2차 철병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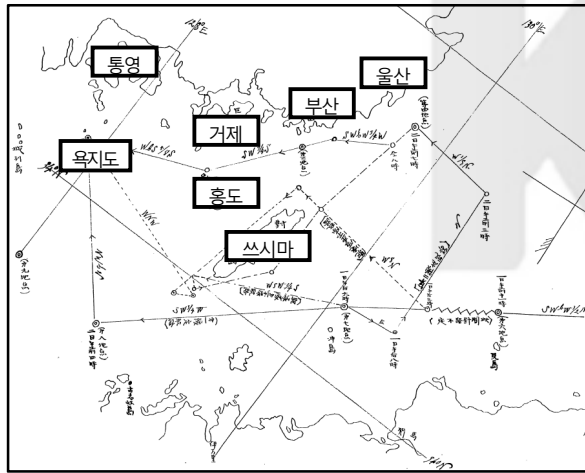
32) 류교열, 『제국일본의 송진포 해군기지 건설-국제관계와 지역사회의 변동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62, 2014. 참고.

1903년 4월 8일 러시아는 돌연 철수를 지연시켜 버렸다. 1903년 8월 12일 주러공사를 통해 일본은 조선을 러시아에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러시아에 전달했다.<sup>33)</sup>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1903년 3~4월 조선을 둘러싼 해양에서 ‘해군대연습’을 실시했다. 대규모 훈련의 목적은 진해만을 포함한 ‘조선해협’의 확보였다. 연합함대사령장관은 “적의 목적은 ‘조선해협’의 제압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공격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훈련은 해군 함대와 육군 요새포병대가 합동으로 시행했다.<sup>34)</sup>

연합함대는 西軍과 東軍으로 나누었다. 일반방침을 보면, 서군의 주력은 중국해 북부, 그 支隊는 동해 북부에 두고 함께 전비를 완성하도록 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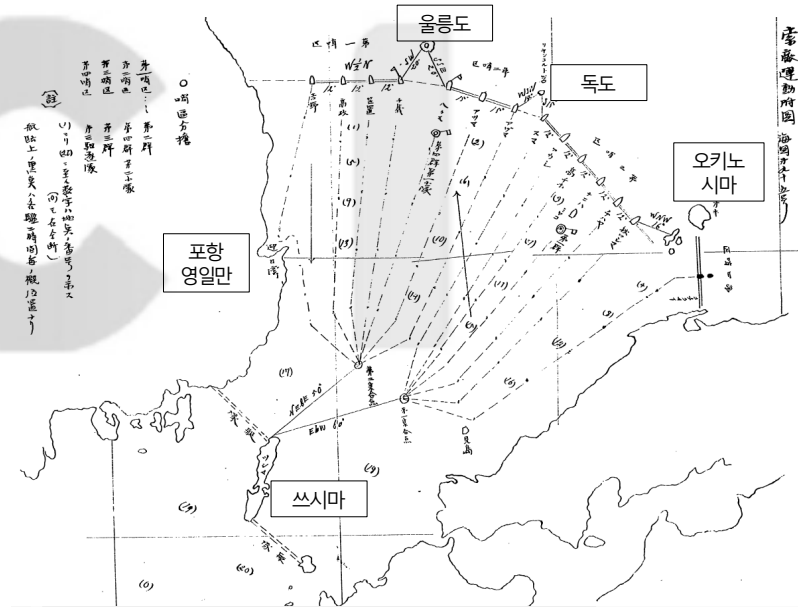
<그림 4> 서군 支隊 예정 항로도



33) 심현용, 「러일전쟁 시기 러일 양국군의 한반도 내 군사활동」, 『아시아문화』 21, 13쪽.  
 34) 해군의 해상연습에 관한 보고서 『密大日記明治36年從1月至6月』(陸軍省, 1903)에 편철된 「第12師団海軍大演習陪觀の件報告」(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3022786700), 「第1師団海軍大演習陪觀の件報告」(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3022786800), 「第4師団海軍大演習陪觀の件報告」(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3022786900) 등 3건을 참고 할 수 있다.

서군이 먼저 합동하여 조선 남해안(울산~목포 팔구포)에 중요 지역을 점령하도록 했다. 사세보항에 집결하여 준비를 완료한 동군은 서군의 전력 미치지 않는 곳에 출정하고, 각 군항과 요항 방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그림 4>는 1903년 3월 31일~4월 3일 시행한 해군대연습 보고서의 훈련 항로 서군의 支隊 연습항로이다. <그림 5>는 연합함대의 동해안 수색 구역을 표시한 것이다. 작전지역을 울릉도·독도·오키노시마로 하는 동해선과, 쓰시마를 기점으로 남해선을 구역으로 적의 함선을 수색하는 연습을 시행했다.

<그림 5> 연합함대의 적함대 수색 담당 구역



‘해군대연습’은 러일전쟁을 가상한 실전이었다. 일본 해군은 연합함대 체제로 재편하고 1904년 2월 2일 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함대사령관은 연합함대(제1함대, 제2함대)에 황해방면의 러시아함대를 격파하는 임무

를, 제3함대는 진해만을 점령하고 ‘조선해협’을 경계하는 임무를 발령했다.<sup>35)</sup> 해군 파견과 동시에 주요 지역에 군사기지 건설을 시작했다. 군항, 요항, 가근거지로 구분하여 방비계획을 실행했다. 1903년 12월 결정된 <1903년도 假根據地防禦計劃>에 근거해서 진해만, 팔구포, 아산, 대동강, 원산, 그리고 대련에 임시 근거지를 설정하고, 부대를 파견하여 시설물 건설을 시작했다. 작전계획에 따르면, 일본 연합함대는 여순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고, 제3함대는 조선해협을 봉쇄하며, 임시근거지를 진해만에 설치하도록 했다. 쓰시마에서 거제도, 마산포를 연결하는 전신선을 설치하여 해군의 가근거지,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근거지별 현황과 구축과정은 <표 5>와 같다.<sup>36)</sup>

<표 5> 러일전쟁시기 전진근거지 현황과 경과

구분	경과
진해만	1904년 2월 7일 점령. 가근거지방비대 파견. 12월 진해만방비대로 개칭. 전후 영구방어 설비.
팔구포	연합함대 전진근거지로 선정. 함대부속부설대에서 방비 시행. 1905년 1월 27일 팔구포방비대로 편제. 10월 16일 편제를 해제.
아산	1904년 2월 중순 전진근거지로 선정하고 항구에 방비시설 구축함. 작전 진행 후 사용을 멈추고, 2월 하순 방비를 철수.
해주읍	1904년 2월 하순 전진근거지로 선정. 연합함대 주력을 3월 7일부터 집중시키고 정방비를 실시.
대동강	1904년 3월 상순 근거지로 선정. 제7함대와 함대부속부설대에서 방비 시행. 10월 상순 철수.
대련	1904년 10월 대련만방비대 편제. 러시아 증원함대에 대비한 수뢰방비를 실시.
襄長山 열도	1904년 5월 상순 전진근거지로 선정. 연합함대 주력을 5월 9일 집중시키고 방비 시행. 9월 상순 철수.
旅順口	1905년 1월 진수부를 설치. 러시아 증원함대에 대비해陸正面 방비를 실시하고, 해상방비는 새로이 시행하지 않음
원산	1905년 1월 상순 北韓 방면 전진근거지로 선정. 2월 13일 원산방비대를 편제하여 방비. 전후 영구방어 설비.

출처 : 海軍軍令部, 『第1編 防備/第1章 防備一般』,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4500)

35) 外山三郎, 『日本海軍史』, 吉川弘文館, 2013, 83쪽.

36) 러일전쟁 이후 진해만 병력은 1/20, 원산의 병력은 1/4만 잔류하도록 했다. 팔구포방비대는 전부 철거하여 편제를 해제했다.(海軍軍令部, 『第1編 防備/第1章 防備一般』,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4500))

<1903년도 假根據地防禦計劃>에 근거해서 사세보진수부는 진해만 가근거지 건설을 시작했다.<sup>37)</sup> 가근거지방비대준비원 13명은 1904년 1월 4일 사세보진수부 내 사무소를 개설했다. 대포, 수뢰, 부속병기 재료조사, 부설지도 등의 표를 조정하고, 측량기구, 피복, 양식, 치료품 등도 준비했다. 1월 12일 <1903년도 해군전시편제>에 준해서 가근거지방비대를 편제하고, 준비원은 가근거지방비대의 사령관 등으로 임명했다. 곧이어 가근거지 방어공사에 착수했다. 진해만 내에는 거제도 송진포에 해군 근거지를 구축했다. 이 근거지대를 방비하기 위해 출입 2곳의 수로를 방어하는 시설을 설치했다. 한 곳의 수로는 한산도 주변의 견내량수도 방면이고, 한 곳은 가덕도-저도-거제도를 잇는 가덕수도 지대였다.

육군에서도 진해만 방비를 위해 1903년 12월 상순 진해만요새포병대를 편제했다. 12월 13일 진해만에 파견하고 한국주차군사령관의 예하로 들어갔다. 거제도 동북쪽에서 저도를 지나 가덕도에 이르는 진해만어선은 진해만과 마산포의 함선 침입을 막고, 일본 함대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남해안에 일본 육해군의 근거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포대는 가덕도 남단의 외양포와 저도에 구축했다.<sup>38)</sup>

팔구포에도 방어시설을 건설했다. 1903년 12월 팔구포를 방어하기 위해 해군 군령부는 <나주군도 방어계획>을 수립했다. 수뢰위소와 포대를 가설하여 군함의 위력을 통해 팔구포로 통하는 모든 수로를 방어하는

37) 진해만, 팔구포 근거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第1編 防備/第6章 前進根拠地の防備』(『極秘 明治37.8年海戰史』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5200))를 참고했다.

38) 가덕도 외양포기지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이지영 외, 『가덕도 외양포의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연구-군막사 및 포대진지의 구축과정과 건축특성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9-3-70, 2010; 김경남, 『韓末日帝의 鎭海灣要塞建設과 植民都市開發의 變形』, 『항도부산』 28, 2012; 남윤순·김기수, 『가덕도 외양포 일대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고찰-국수봉 일대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것을 목적으로 했다. 1904년 2월 6일 연합함대는 사세보를 출발해서 2월 7일 팔구포에 도착했다. 옥도, 장병도, 대야도 동쪽과 북쪽, 남도, 북도에 부표수뢰 가설, 포대 건설, 통신시설 구축을 긴급히 시행했다. 3월 3일 방비시설을 완성했다.

#### IV. 맺음말

일본 해군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橫須賀군항, 吳군항, 佐世保군항, 竹敷요항의 규모를 확장하고, 舞鶴군항을 개설했다. 대만에도 馬公요항을 건설했다. 1903년 7월 일본 해군은 長崎, 函關, 門司, 由浪, 大湊 5곳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함대전진근거지와 전략지점을 수색하고 측량하는데 힘을 쏟았다. 주요지역은 조선 남해안과 서해안의 항이었다. 1896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진해만, 팔구포, 해주읍, 대동강, 아산錨地, 영흥만, 나주군도, 長山열도, 羅源灣 등을 정밀 측량하고, 각 지역의 군용 해도를 제작했다.

해도 제작은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담당했다. 수로부는 조선의 수로와 특징을 기록한 『朝鮮水路誌』를 1894년 11월 발행했다.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청일전쟁 이후 1899년 재간행하고, 러일전쟁 전후 빠르고 전면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서 1907년 전폭적으로 개정 보완했다.

수로부는 1896년 『朝鮮全岸』을 시작으로 매년 많은 해도를 제작했다. 해군의 조선해안 측량의 결과는 1905년을 전후해서 대대적인 해도의 수정보완으로 나타났다. 수로부는 매년 간행하는 해도목록집을 발행하는데, 1899년부터 1903년까지 울산항, 소안도, 마산포 및 거제도-지세포 해도는 일반에 제공되지 않았다. 1905년 1월 조사에 따르면 대동강, 인천과 서울 한강, 군산, 완도, 마산과 거제도, 울산의 해도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1899~1903년 일본 해군의 남해안 조사보고서를 정리해보면 대략 몇 가지 사안들로 집약된다. 첫째는 개항장, 둘째는 진해만, 셋째는 팔구포, 넷째는 석탄저장소와 식수 조사이다.

첫째는 부산, 마산, 목포 등 개항장 조사였다. 마산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마산포 토지 매입 경과, 배치된 군함과 군인들의 동향, 교통, 물산, 일본상인과 거류민 현황, 해안 매립 공사 진행 상황, 세관과 우편국 공사 진행 점검, 식수 등을 자세히 기록했다. 목포와 군산에 대해서도 25개 항목을 세밀히 조사했다. 부산과 목포에서는 전염병을 포함한 위생상황을 살폈다. 군산을 조사한 후에는 해도와 『조선수로지』의 정보가 실제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보고했다.

둘째는 진해만 조사였다. 진해만은 부산 가덕도에서 거제도와 통영까지 이른다. 조사보고서마다 빠지지 않는 조사지역이 진해만이다. 마산포, 진해만, 거제도 죽림포, 거제도 지세포, 한산수도에 대한 수로조사와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계속 보고했다.

셋째는 팔구포 조사였다. 1901년 8월 상주한 보고서는 팔구포를 집중 조사하고 각 함대별로 의견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140여장에 달한다. 팔구포는 남서해안이 만나는 지점으로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군도이다. 팔구포는 조선 남해안에 위치하여 황해와 조선 해협을 장악하고, 동해와 중국해의 중간에 위치하여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각 지구의 방어 시설과 배치 병력, 방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넷째는 석탄저장소와 식수공급에 대한 보고서이다. 항해하는 중에 석탄과 물 공급은 필수품이다. 마산에 석탄저장소 공사를 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었고, 일본 해군이 조선 서남해안을 항해 할 때는 목포에서 석탄과 물을 보급하는 것이 좋은 데 고하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연안 조사 중 정박한 지역의 수질을 검사하여 생수로 음용이 가능한지 보고했다.

일본 해군의 정보 수집은 전략과 전술로 이어졌다. ‘조선해협’의 확보를 목적으로 일본 해군은 대규모 훈련을 1903년 3~4월 시행했다.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행한 전쟁 준비였다. 연합함대사령장관은 “적의 목적은 ‘조선해협’의 제압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공격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훈련은 해군 함대와 육군 요새포병대가 합동으로 시행했다. 조선 남해안 전체를 방어하고, ‘조선해협’은 특별구역으로 촘촘히 방어막을 형성했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남동해에서는 적함선 수색연습도 실시했다.

1904년 러일전쟁에 앞서 일본 해군은 군항, 요항, 가근거지 별로 방비 계획을 수립했다. 1903년 12월 일본의 작전 계획에 따르면, 일본 연합함대는 여순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고, 제3함대는 ‘조선해협’을 봉쇄하며, 임시근거지를 진해만에 설치하도록 했다. 쓰시마에서 거제도를 거쳐 마산포를 연결하는 전신선을 설치하여 해군의 가근거지,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게 하는 등의 지침도 마련되었다. 해군 가근거지방비대를 송진포에 파견하여 가덕도-저도-거제도와 한산도 등에 포대와 수뢰를 가설했다. 목포 팔구포에도 연합함대를 파견하여 방비시설을 완성했다.

일본군이 러일전쟁 직전 급히 구축했던 군사시설은 이후 일본군의 영구 군사기지로 확장되었고, ‘조선해협’을 포함한 남해안 방어를 위해서 진해에는 군항을 설치하여 일본 해군의 근거지로 삼았다.

투고일 : 5월 3일 심사일 : 5월 23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

주제어 : 러일전쟁, 조선해협, 대한해협, 대마해협, 해안측량, 일본해군, 수로부, 수로지, 해도, 군사기지, 진해, 목포, 거제도

## ■ 참고문헌

- 水路部, 『朝鮮水路誌』, 東京製紙分社, 1894.  
 水路部, 『朝鮮水路誌 第2版』, 東京印刷株式會社, 1899.  
 水路部, 『刊行水路圖誌目錄』,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水路部, 『供給水路圖誌目錄』, 1901; 1902; 1903; 1904(1); 1904(2); 1905; 1906.  
 海軍省, 『軍艦警備海門築波天龍為測量派遣并歸朝命免(1)~(2)』, 『明治32年公文備考 艦船1卷7』, 1899.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91208700)  
 海軍省, 『驅逐艇薄雲 夕霧韓国沿岸巡航報告(1)~(2)』, 『明治33年公文備考 艦船3卷10』, 1900.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91267500 ~ C06091267600)  
 海軍省, 『常備艦隊敷島, 出雲, 浅間, 常磐, 笠置, 夕霧, 漣, 隣邦沿岸巡航報告(1)~(8)』, 『明治34年公文備考 演習艦船1卷8』, 1901.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91313600 ~ C06091314300)  
 海軍省, 『艦船3(1)~(3)』, 『明治34年公文備考 艦船3卷10』, 1901.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91470500 ~ C06091470800)  
 海軍省, 『水雷艇隊巡航報告(1)~(3)』, 『明治36年公文備考 卷14艦船3』, 1902.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91470500 ~ C06091470800)  
 海軍省, 『第12師団海軍大演習陪觀の件報告』, 『密大日記明治36年從1月至6月』, 1903.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3022786700)  
 海軍省, 『極秘明治37.8年海戰史』, 1911.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029500 ~ C05110203200)  
 海軍軍令部 編, 『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第1卷~第4卷, 春陽堂, 1910.  
 海軍軍令部 編, 『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上卷~下卷, 内閣印刷局朝陽會, 1934.  
 고경석, 『鎮海軍港史』, 2016.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범문사, 2011.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조재곤,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 : 러일전쟁과 한국사회』, 일조각, 2017.  
 최문영,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8.  
 최혜주, 『정답 : 제국일본, 조선을 엿보다』,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9.

- 김경남, 「韓末日帝의 鎮海灣要塞建設과 植民都市開發의 變形」, 『港都釜山』 28, 2010.
- 김영, 「해군성 수로부장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에 관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23, 2017.
- 김용욱, 「淸日戰爭(1894-1895)·露日戰爭(1904-1905)과 朝鮮海洋에 대한 制海權」, 『법학연구』 49-1, 2008.
- 김일상, 「鎮海軍港史」, 『海洋戰略』 8, 1981.
- 김일상, 「日帝의 韓半島 侵略政策과 鎮海軍港建設」, 『海洋戰略』 69, 1990.
- 남영우, 「日帝 參謀本部 間諜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近代地圖의 作成過程」, 『문화역사지리』 4-4, 1992.
- 남윤순 외, 「가덕도 외양포 일대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고찰-국수봉 일대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 류교열, 「제국일본의 송진포 해군기지 건설-국제관계와 지역사회의 변동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62, 2014.
- 박경, 「러시아제국의 극동진출과 1860년대 이후의 한반도 주변 지도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6-2, 2016.
- 서인원, 「일본 육지측량부 지도제작」, 『영토해양연구』 14, 2017.
- 송희영,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 106, 2011.
- 심현용, 「러일전쟁 시기 러일 양국군의 한반도 내 군사활동」, 『아시아문화』 21, 2005.
- 심현용, 「러일전쟁기 러시아의 동아시아 해양군사전략과 독도의 위상」, 『군사전략』 14-2, 2008.
- 오병환, 「1906년 일본군 安東縣軍政署의 鴨綠江 하구 조사의 성격과 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80, 2017.
- 유장근 외, 「大韓帝國時期 馬山浦 地域의 러시아 租借地 성립과정과 各國共同租界 지역의 都市化」, 『人文論叢』 16, 2003.
- 이지영 외, 「가덕도 외양포의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연구-군막사 및 포대진지의 구축과정과 건축특성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9-3-70, 2010.
- 이학수, 「진해 군항의 탄생」, 『해항도시문화교섭학』 7, 2012.
- 정영미, 『일본의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 섬의 명칭 혼란(島名의 混亂)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조건, 「日本防衛省 소장 陸軍 ‘日露戰役’ 문서군의 한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2018.
- 최덕규, 「러시아 해군성과 마산포(1894~1905)」, 『한국시베리아학보』 창간호, 1999.
- 최성환, 「러일전쟁기 일본해군의 玉島 八口浦防備隊 설치와 활용」, 『도서문화』 38, 2011.
- 한철호,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65, 2013.
- 한철호, 「대한(조선)해협의 명칭 변화 및 그 의미-일본 해군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44, 2014.
- 한철호, 「일본 수로부의 「조선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169, 2015.
- 한철호,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0, 2015.
- 大濱徹也·小澤郁郎, 『帝國陸海軍事典(改訂版)』, 同成社, 1995.
-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 牛越國昭, 『對外軍用秘密地圖のための潛入盜測 1』, 同時代社, 2009.
- 牛越國昭, 『對外軍用秘密地圖のための潛入盜測 2』, 同時代社, 2011.
- 牛越國昭, 『對外軍用秘密地圖のための潛入盜測 3』, 同時代社, 2014.
- 牛越國昭, 『對外軍用秘密地圖のための潛入盜測 4』, 同時代社, 2015.



## ■ 국문요약

## 일본 해군의 남해안 조사와 러일전쟁

김윤미

이 글은 러일전쟁 직전 일본 해군이 시행한 한반도 해안측량과 거점지역 조사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러일전쟁은 조선이 일본의 지배아래 놓이게 된 결정적인 전쟁이었던 만큼 관련 연구가 상당하다. 그러나 국제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실증연구의 축적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 해군이 생산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일본 해군은 러일전쟁 직전 조선 남해안 측량을 시행하여 조선 해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도 제작에 나섰다. 이 중 전략지점은 정밀하게 측량하고 군용해도를 만들었다. 조사를 통해 생산한 보고서에는 몇 가지 사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부산, 마산, 목포 등 개항장에 대한 조사이다. 둘째는 진해만과 팔구포에 관한 것이다. 셋째는 석탄저장소와 식수공급에 대한 보고이다. 조사를 근간으로 일본 해군은 ‘조선해협’을 사이에 두고 동해와 남해에서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한 대규모 군사연습을 시행했고, 진해만과 팔구포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 ■ Abstract

## Survey of IJN in Southern Coastline in Korea and Russo-Japanese War

Kim, Yoon-mi

This essay looks into the nature of coastal survey Imperial Japan Navy conducted moments leading to the Russo-Japanese War. As the war was one of the decisive conflicts which put Chosun under the Japanese sphere of influence, There is ample amount of research focusing on the conflict.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 efforts tried to uncover international relationship dynamics surrounding the war, rather than the fact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heart of the conflict. As the topic needs more empirical evidence accumulated, We attempted to a regional and specific study analyzing reports produced by the Japanese Navy.

The IJN collected information of the southern coastline in Chosun through measurement projects, and chartered nautical chart, right before the Russo-Japanese War broke out. Notably, naval nautical charts are produced with precise measurements for strategical points. The line of correspondence due to the measurement efforts discuss a few specific matters in particular. Firstly, a survey on treaty ports, such as Busan, Masan, Mokpo; secondly, the survey regarding Jinhae Bay and Palgu-Po; and finally, storage facilities for coal and supply of drinking water were the main points of interest of the Japanese Navy. Based on survey results, The IJN conducted large-scale

military practice in the East Sea and South Sea with ‘Chosun Straits’ in between, with Russians as a hypothetical adversary. Also, the Japanese Navy installed military establishments in Jinhae Bay and Palgu-Po.

Key word : the Russo-Japanese Wars, Joseon Straits, Korea Straits, Tsushima Strait, coastal survey, Imperial Japan Navy, Hydrographic Office, Hydrographic Pilot, Navy Chart, Military base, Jinhae, Mokpo, Geoje

K C I